

만한 응답이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일에 봉사하겠다는 의식을 지니면 병을 예방하고 장수할 수 있다는 답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일을 했고, 자신의 일에서 어떤 의미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방치하지 않았고,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70세가 넘으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일을 맡은 것입니다. 그들이 집에서 기르는 닭들에게 모이를 주었는지, 겨울 작물을 잘 가꾸었는지, 손주를 잘 보살폈는지, 물건을 주문했는지, 털실로 양말을 짰는지, 평생 교육원 과정을 이수했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여긴 일을 기꺼이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외부에서 그들에게 들이밀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계 자료는 우리에게 다른 것도 가르쳐 줍니다.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이 그다지 피드백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

의 행동을 인정받고 감사받는 것을 포함해 그 밖의 긍정적인 반응이 그들에게 별반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활동에 보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중의 갈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강인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두려울지라도 그 두려움이 그들의 행동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비난받고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아침하고 탐욕스러운 관심을 주더라도 그들은 목표를 다른 데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이 그들의 원칙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지칠 줄 모르는 힘을 지니게 하는 비결입니다.

번아웃 현상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피드백에 의존했는지 검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건실했고 자신의 직업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도 학부모

도 꺼리지 않았고, 이들에게 관심받고자 애쓰지도 않았 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학생 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자기가 줄 수 있는 것 이 무엇인지 고심했습니다. 어떤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외에는 그 무엇에도 마음 쓰지 않았습니 다. 그것이 학부모나 학교장에게 통하든 그렇지 않든 개 의치 않았습시다. 그들은 자기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 할 수 있었고, 교실 안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압할 능력도 지녔습니다.

그다음 가사에 종사하는 이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들 에게는 앞에서 말한 피드백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만큼 바쁘고 부지 런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데 이들만큼 크 게 기여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작은 요정’⁵⁾이 아니고 서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집안일을 하는 이들은 대

5) 밤에 몰래 나타나 농가의 일을 대신해 주는 존재. 근면한 것 외에도 몸집 이 아주 작고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역자 주

부분 여성들, 가정주부입니다. 그들은 집 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만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나르고, 망가진 것을 손질하고, 쓰레기를 분류해 밖에 내다 놓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계와 로봇이 이들을 대신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도 기계와 로봇이 이들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저 부지런하고 성실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오, 창문이 다시 반짝반짝 닦였네!” “음, 시트를 새로 깔 침대에 누우니 기분이 좋군. 시트가 구김 없이 잘 다려졌네!” 그럼 주부 말고는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을까요? 가족 중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까요?

누가 늘 가게 안을 돌며 많은 물건을 정리할까요? 바닥을 깨끗이 치우고, 선반 위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점원일까요? 그럼 점원 말고는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을까요? 손님은 그 일을 하

지 않을까요? 상점 주인은 그 일을 결코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에 누군가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집안일은 많은 것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일, 집안 분위기를 만드는 일, 가계 예산을 짜는 일, 집안의 환자를 돌보는 일, 여러 많은 일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손으로 하는 일은 해도 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고도의 통합 활동인 가사 노동은 당연한 듯 이루어지고, 수혜자들에게는 그 가치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과소 평가될 뿐입니다.

환자를 돌본다는 말에서 다른 직업군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감사의 인사를 때로는 받지 못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해 일하는 이들과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환자, 장애인, 사회적 약자, 노